

제8호(2016. 3. 18.)

농업인의 기후변화 인식도와 적응 실태

김창길 정학균 박지연



1. 조사의 배경과 목적	1
2. 기후변화 인식도 변화 및 적응실태 분석	3
3. 조사결과의 시사점	12

감 수	김미복 연구위원	061-820-2323	mbkim@krei.re.kr
내용 문의	김창길 선임연구위원	061-820-2265	changgil@krei.re.kr
자료 문의	성진석 선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요 약

- **기후변화로 평균기온의 지속적 상승 등 변동성이 심화되어 왔고, 미래에도 기후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슈퍼 엘니뇨 발생으로 봄철 가뭄 발생 예상**
 - 한반도 기온은 1912~2010년간 1.8℃ 상승했으며, 폭염, 열대야와 같은 고온 및 집중 호우 현상이 크게 증가할 전망
 - 최근 슈퍼 엘니뇨의 발생에 따라 한반도에 봄철 가뭄이 예상되고 있음.
 - 기후변화로 농작물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농가단위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적응전략 수립을 위해 농업인들의 기후변화 적응실태에 대한 분석 필요
- **농업인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지도는 2009년 조사치에 비해 상승하였으며 기후 변화가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또한 더욱 부정적으로 변화**
 - 기후변화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82.8%로 2009년(76.9%)에 비해 5.9%p 상승
 - 기후변화로 인한 체감 정도는 ‘평균기온 상승’이 가장 높았고, ‘가뭄 횟수 증가’와 ‘비오는 시기(패턴) 변화’ 순으로 체감
 - 응답자의 83.8%가 기후변화가 농업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2009년(73.7%)에 비해 10.1%p 확대
- **보험가입 농업인 조사 결과,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제적 효과 존재**
 -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의 농업소득을 100이라고 할 때, 농작물재해보험 효과는 15.6으로 나타남.
 - 재해보험에 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농업인(97.5%)의 12.1%만이 보험 정보에 만족
 - 보험 미가입 이유는 ‘높은 보험료’(24.3%), ‘미보험대상 품목’(21.9%) 등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절반 이상(51%)이 작목전환 경험 있고, 작목전환 후 농가의 소득 증가**
 - 작목전환 후 소득은 전체 농가의 경우 7.7%, 기후변화 대응 농가의 경우 9.1% 증가
 - 시기별 작목전환 후의 소득변화를 살펴본 결과, 기술적응의 어려움, 초기 투자비 등으로 최근 전환농가의 소득 증가율이 크지 않음.
- **기후변화 적응수단으로서 농업보험 확대, 작목전환 유도 방안 필요**
 - 농작물 재해보험의 실질적 효과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심층적 홍보나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
 - 기후변화 대응수단으로서 작목전환을 선택할 때 기술적응의 어려움, 초기 투자비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보상 프로그램 도입 필요

1. 조사의 배경과 목적

- 1912년 이후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를 분석한 결과, 1912~2010년간 기온은 1.8℃ 상승하였고, 강수량은 200mm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권원태, 2012).
 - * 기후는 장기간에 걸친(통상적으로 약 30년 평균) 특정지역의 대기상태를 지칭하며, 기후변화는 기후특성의 평균이나 변동성의 변화를 통계분석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고 수십 년 혹은 그 이상 오래 지속되는 기후상태를 의미함.
- 한반도에서 최근 관측된 기후변화의 경향을 살펴보면, 1981~2010년 동안 0.41℃/10년, 2001~2010년 기간 동안 0.5℃/10년의 변화율을 보여, 과거 1954~1999년 동안 +0.23℃/10년의 변화율보다 큰 변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환경부, 2014).
- 한반도 미래기후변화 전망에서 온실가스 증가로 과거 30년간의 관측 자료에서 나타나는 지구온난화 경향이 210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 극한기후는 폭염, 열대야 등 고온현상이 3~6배 증가하며, 일강수량 80mm 이상의 집중호우 일수는 2050년 6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기상청, 2012).
- 최근 기상청 보도 자료에 따르면 슈퍼 엘니뇨(적도 부근 태평양의 해수 온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현상)가 발달하여 진행 중이며 봄철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기상청, 2016. 1. 4.). 한반도는 과거의 사례로 보아 심한 봄 가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짐.
 - 엘니뇨가 발생하게 되면 정상적인 대류의 흐름을 방해하여 세계적인 이상기상의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지역에 따라 기상재해가 나타날 수 있음.
- 기후변화로 단수 감소, 품질 저하 등 농작물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김창길 외, 2012).
 - 기후변화가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재배가능 기간의 확대로 새로운 작목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도 하나,

“

미래의 한반도
기후변화 가속화될
전망

”

“
 농가단위 기후변화
 적응수단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물 이용량 감소, 기온상승에 따른 생육기간 단축으로 작물 수량감소와 품질 저하, 고온으로 인한 수분 및 수정장애에 따른 임실률의 저하, 태풍 발생에 의한 도복과 염해의 증가, 병해충의 활동 증대에 따른 농업생태계의 교란 등 부정적인 측면을 들 수 있음.

○ 미래의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적응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기후변화 적응이란 기후변화로 인해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루어지는 생태학적 및 사회경제적 시스템의 조절작용을 의미함. 즉, 적응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부정적 영향을 경감하고 새로운 기회를 이용하려는 것임.

- 기후변화 완화 대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현저히 줄어들더라도 향후 수십 년은 과거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지속될 것이므로, 기후 의존적이고 타 산업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농업부문의 경우 적절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모색은 중요한 과제임.

-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적응의 유형은 크게 영향을 받는 시스템의 민감도를 줄이는 방식(자연재해 대비 기반시설 관리강화, 보험, 품종개량 등), 시스템의 노출을 변경시키는 방식(예방활동과 조기경보 활용 등), 사회적생태적 시스템의 복원력을 증가시키는 방식(생물다양성 제고 및 자원보호 등) 등으로 대별될 수 있음(OECD, 2006).

○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추진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등 제약이 따르므로 적응 수단을 도입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적응수단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농가들의 적응실태 분석을 기초로 효과적인 적응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임. 만약 농가가 추진되는 정책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또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정책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정책의 효과는 미미할 것이기 때문임.

○ 따라서 이 조사는 실효성 있는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정책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추진됨. 이 조사·연구의 목적은 첫째, 기후변화 및 기후변화가 농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농가들의 인식을 파악하는 데 있음. 둘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농가들이 활용하고 있는 적응수단 및 그 애로사항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음. 셋째, 조사 자료를 기초로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음.

2. 기후변화 인식도 변화 및 적응실태 분석

2.1. 농업인 설문조사 개요

- 농업인들의 기후변화 인식도 및 적응수단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설문 내용은 인식도, 적응수단 활용 및 애로사항 등으로 구성함. 농업인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도가 시간에 따라 변화했는지 보기 위해 2009년 조사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포함함.
 - 조사기간은 2015년 9~10월, 조사대상은 KREI 현지통신원¹⁾으로 총 433명(인터넷조사)임. 2009년은 8~9월, KREI 현지통신원 377명(우편조사)과 농업인 105명(면접조사)으로 총 482명임<표 1>.
 - 2015년과 2009년 모두 응답자의 나이는 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60세 이상을 비교하면 2015년이 34.4%로 2009년(49.0%)보다 크게 낮았음. 학력에서도 ‘대학교 졸업 이상’이 2015년에는 50.5%로 2009년(15.4%)보다 크게 높았음. 이는 설문조사 방법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표 1.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비교

단위: %

비교		2015	2009
응답자수(명)		433	482
조사기간(월)		9~10	8~9
설문대상 (조사방법)		KREI 현지통신원 (인터넷조사, 433)	KREI 현지통신원(우편조사, 377), 농업인(면접조사, 105)
성 별	남	78.3	82.6
	여	21.7	17.4
나 이	40세 미만	5.4	4.1
	40~50세 미만	16.9	14.7
	50~60세 미만	43.3	31.1
	60~70세 미만	31.1	24.9
	70세 이상	3.3	24.1
학 력	초등학교 이하	1.4	13.4
	중학교 졸업	8.3	28
	고등학교 졸업	39.9	43.2
	대학교 졸업 이상	50.5	15.4
거주 지역	평야지대	30.2	24.1
	산간지대	16.3	19.7
	준산간지대	39.3	40.9
	도시근교	14.1	10.4

주: 비중(%)은 유효 응답자 기준으로 제시됨.

1) KREI 현지통신원은 연구원의 각종 연구 사업과 기관 운영을 위한 설문조사, 농정 여론 및 주민의 대농정 건의 등을 수집하여 알려주고 연구원의 연구자가 농촌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협조하는 일을 담당한다.

“
기후변화 인식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2009 · 2015년
설문조사 비교
”

“

2015년 기후변화
인지도 2009년에 비해
5.9%p 상승

”

2.2. 농업인의 기후변화 인식도 변화

□ 기후변화에 대한 인지도

-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가 30.0%, ‘알고 있다’가 52.8%로 약 82.8%가 기후변화를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09년 조사치(76.9%)와 비교하면, 5.9%p 증가함.

표 2. 기후변화에 대한 인지도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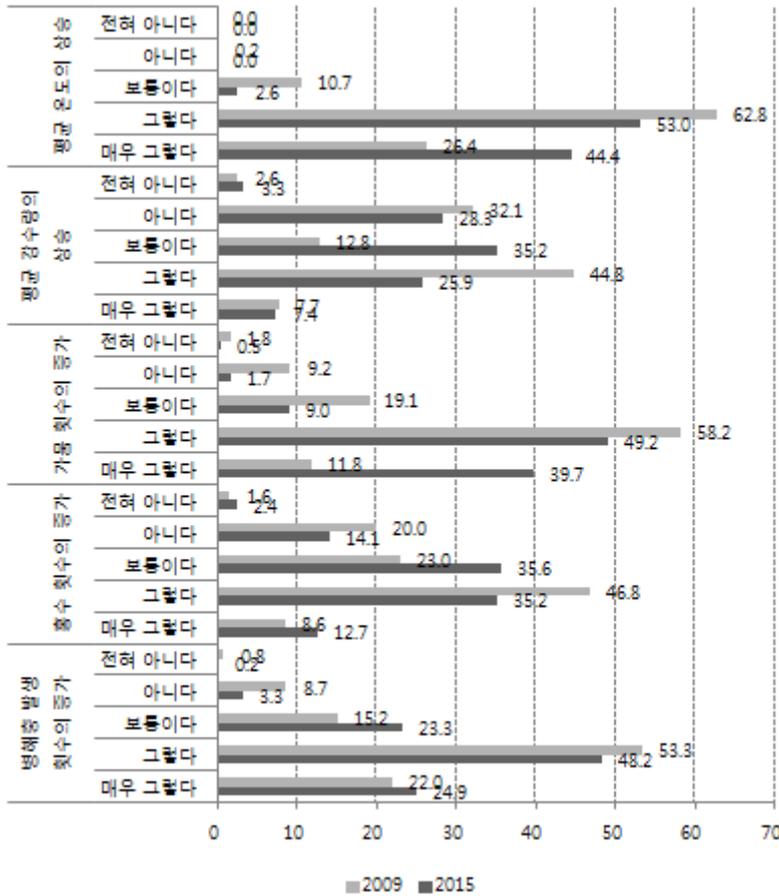
2015		2009	
잘 알고 있다	30.0	자세히 알고 있다	10.0
알고 있다	52.8	어느 정도 알고 있다	66.9
보통이다	16.5	들어본 적은 있다	21.4
모른다	0.7	전혀 모른다	1.5
전혀 모른다	0.0	기타	0.2
전체	100.0	전체	100.0

□ 기후변화에 대한 체감 정도

- 기후변화로 인해 ‘평균온도가 상승’하였다고 응답한 농업인은 97.4%로 대부분의 농업인이 온난화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평균 강수량이 상승’하였다는 응답은 33.3%로 비교적 낮은 응답률을 보임.
 - ‘가뭄의 횟수가 증가’하였다는 응답은 88.9%, ‘홍수의 횟수가 증가’하였다는 응답은 47.9%로 홍수보다는 가뭄에 대한 체감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남.
 - 기후변화로 인하여 ‘병해충 발생 횟수가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농업인이 73.1%로 조사되었음.
- 2015년 농업인의 기후변화 체감 정도를 2009년과 비교해 보면, 평균 온도의 상승, 가뭄 횟수의 증가를 체감하는 농업인이 더 늘어난 반면, 평균 강수량의 상승, 홍수 횟수의 증가 등은 줄어들었음. 이는 2015년의 강수량 감소 및 가뭄의 실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림 1. 기후변화에 대한 체감 정도 변화

단위: %



“
기후변화가 농업생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인식 과거에 비해 10.1%p 확대
”

□ 기후변화가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인식 변화

- 기후변화가 농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농업인의 비중이 83.8%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의 6.8%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기후변화가 농업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으며, 신기술도입에 적극적인 응답자는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기후변화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중을 2009년(73.7%)과 비교할 경우 10.1%p 증가하여 농업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보다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후변화로 병충해
피해가 가장
증가했다고 인식
”

그림 2. 기후변화가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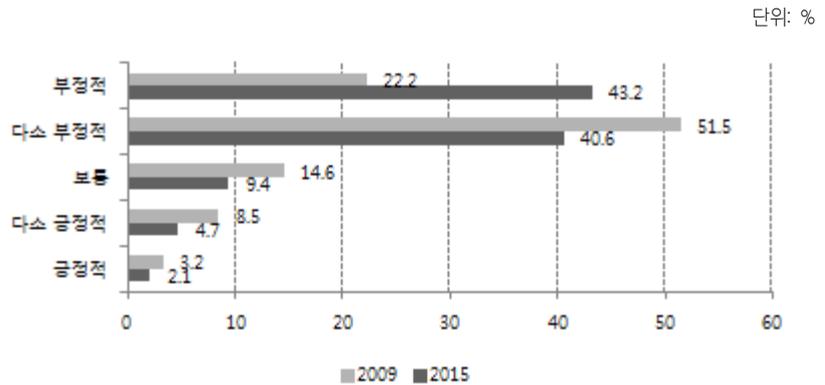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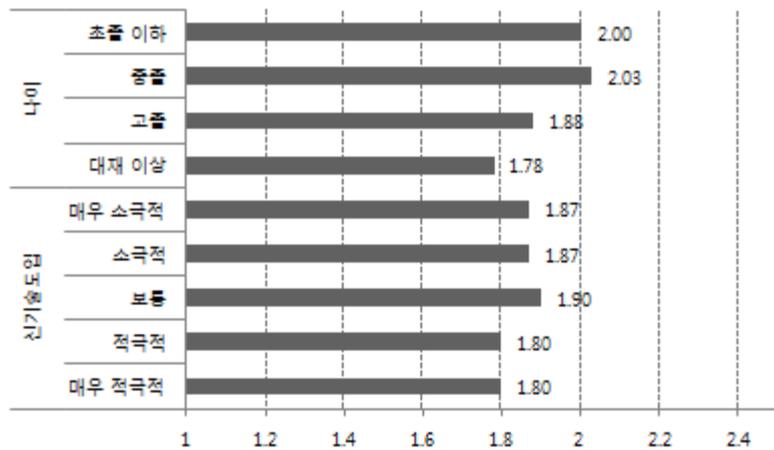


그림 3.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교차분석 결과(2015년 조사 기준)



주 1: 매우 부정적, 2: 부정적, 3: 보통, 4: 긍정적, 5: 매우 긍정적

- 기후변화가 농업생산에 미친 영향으로 ‘병충해 피해의 증가’가 26.4%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단수감소로 인한 생산량 감소’(14.5%), ‘채소류 품질의 저하’(9.7%) 순으로 나타남.
 - ‘병해충 피해가 감소’하거나 ‘채소류의 품질 상승’, ‘벼 또는 맥류의 품질 상승’은 각각 1.6%, 1.1%, 1.6%로 매우 낮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 농업인들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농작물의 품질하락과 생산량 감소 등 부정적인 영향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2009년 조사에서도 기후변화가 농업생산에 미친 영향으로 ‘병충해 피해의 증가’가 25.2%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단수감소로 인한 생산량 감소’(12.2%), ‘채소류 품질의 저하’(9.6%) 순으로 동일하게 나타남.

표 3. 기후변화가 농업생산에 영향을 준 부분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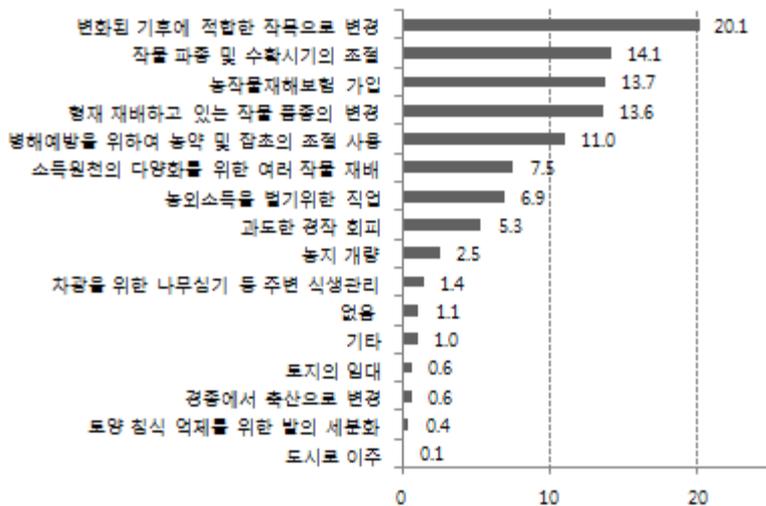
항 목	2015	2009
품목의 재배기간이 짧아짐	9.0	7.0
품목의 재배기간이 길어짐	4.2	-
착색이 양호해짐	2.8	-
착색이 불량해짐	8.3	8.8
단수 증가로 인해 생산량이 증가함	2.5	3.5
단수 감소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함	14.5	12.2
벼 또는 맥류의 품질이 좋아짐	1.6	4.9
벼 또는 맥류의 품질이 나빠짐	4.0	7.9
채소류의 품질이 좋아짐	1.1	1.4
채소류의 품질이 나빠짐	9.7	9.6
과실의 당도가 높아짐	4.7	7.1
과실의 당도가 낮아짐	5.5	7.4
병해충 피해가 증가함	26.4	25.2
병해충 피해가 감소함	1.6	2.3
변화 없음	1.6	1.3
기타	2.5	1.3

주: 2009년 조사에서는 ‘품목의 재배기간이 길어짐’과 ‘착색이 양호해짐’의 항목은 제시되지 않음.

- 농업인들이 현재 적용 중이거나 관심 있는 대응방법은 ‘변화된 기후에 적합한 작목으로 변경’(20.1%), ‘작물 파종 및 수확 시기의 조절’(14.1%), ‘농작물재해보험 가입’(13.7%) 등의 순임.

그림 4. 현재 적용 중이거나 관심 있는 기후변화 대응방법

단위: %



“
농업인들의 적응수단은
작목전환, 재배시기 조절,
재해보험 가입 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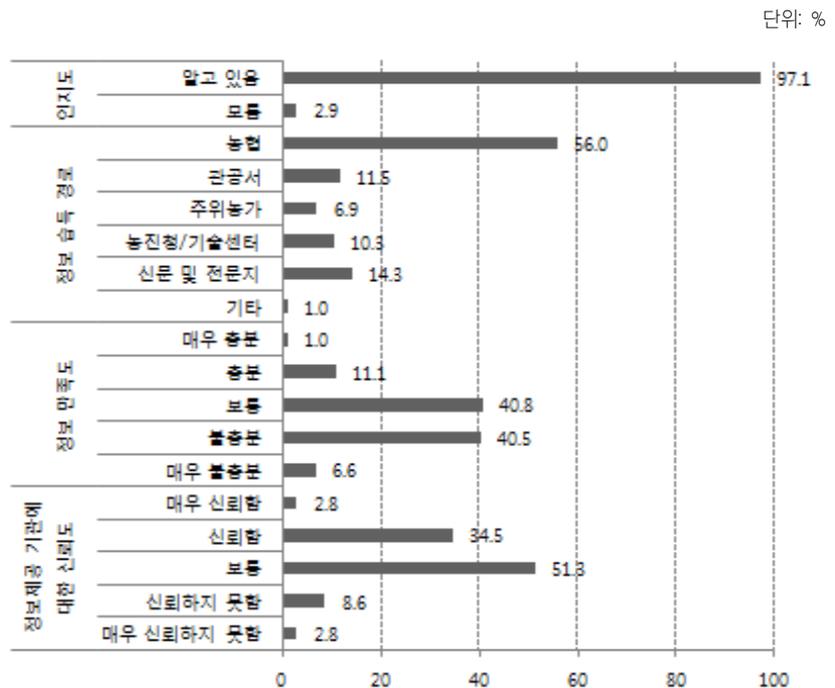
“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 정보 만족도
12.1%에 불과

2.3. 주요 기후변화 적응수단 적용실태

□ 농작물 재해보험 적용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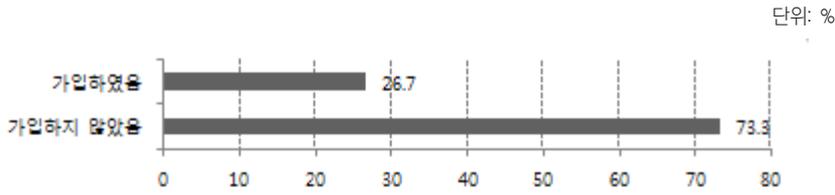
- 전체 응답자 중 97.1%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함. 보험에 관한 정보를 얻은 경로로는 농협이 56.0%로 가장 많았으며, 신문 및 전문지(14.3%), 관공서(11.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농업인의 47.1%가 제공되는 보험에 관한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충분하다’는 응답은 12.1%로 낮게 나타남.
- 농작물재해보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보통’이 51.3%, ‘신뢰함’이 37.3%로 정보제공 기관에 대한 불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5.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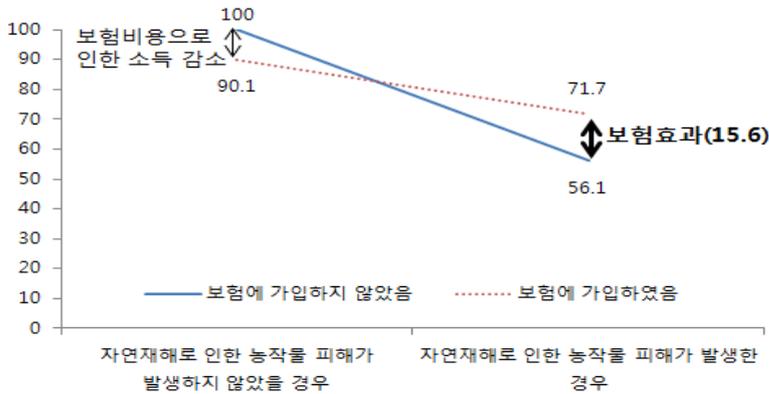
-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농업인 중 실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은 26.7%에 그침.

그림 6.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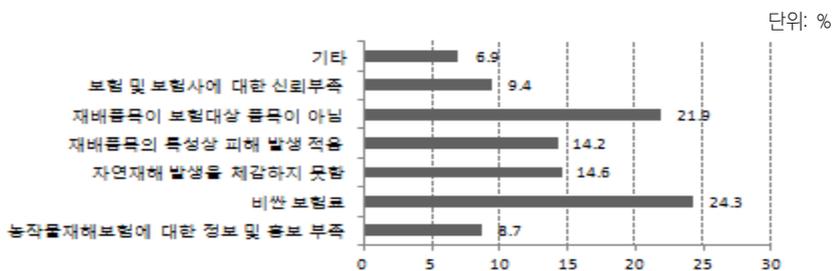
-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농업소득을 100이라고 할 때,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평균 농업소득 피해는 43.9, 보험 가입자의 평균 농업소득 피해는 18.4로 나타남. 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의 피해 차이는 25.5이지만, 재해보험 가입비 (9.9) 고려 시 농작물재해보험 효과는 15.6으로 나타남.

그림 7.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제적 효과



- 보험 미가입 이유는 ‘높은 보험료’(24.3%), ‘미보험대상 품목’(21.9%), ‘자연재해 발생을 체감 못함’(14.6%) 등의 순임.

그림 8. 농작물재해보험 미가입 이유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시 양의
경제적 효과 존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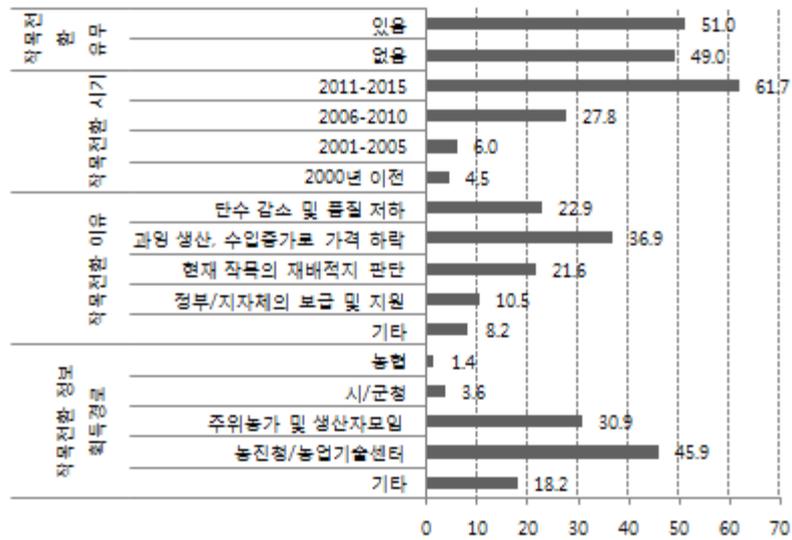
“ 기후변화 대응 작목전환 시 소득 9.1% 증가 ”

□ 작목전환 적용실태

- 농가대상 설문조사 결과 51.0%가 작목전환을 한 경험이 있었으며, 전체의 89.5%가 최근 10년 내 작목전환을 한 것으로 나타남.
 - 작목전환 이유로 ‘과거 작목의 과잉생산, 수입증가로 가격하락’(36.9%), ‘기후변화로 과거작목의 단수 감소 및 품질 저하’(22.9%), ‘기온상승으로 현재 작목의 재배적지 판단’(21.6%) 등의 순으로 기후변화의 대응 방안으로 작목을 전환한 경우가 전체의 44.4%로 나타남.
- 작목전환에 관한 정보는 ‘농진청/농업기술센터’가 45.9%로 가장 많았고, ‘주위 농가 및 생산자모임’이 30.9%로 그 뒤를 이음.

그림 9. 작목전환의 실태

단위: %



- 작목전환 후 소득변화를 질문한 결과, 전환농가 전체의 경우 전환 작목의 소득이 전환 이전 작목의 소득보다 7.7% 증가했다고 응답함. 기후변화 대응 전환농가의 경우도 9.1% 증가했다고 응답함.

표 4. 작목전환 후 소득변화

단위: %

	전체 전환 농가	기후변화 대응 전환 농가
소득변화	7.7	9.1

- 시기별 작목전환 후 소득변화를 살펴보면, 2010년 이전에 전환한 농가의 소득변화가 2011~2015년보다 크게 나타났는데, 전체 농가는 13.3%p, 기후변화 대응 농가는 16.0%p 큼.
- 최근 전환 농가의 소득 증가율이 크지 않은 이유는 작목전환 초기 새로운 재배기술 적응이 미흡하여 단수가 감소하거나 작물(특히 과일류)의 특성상 초기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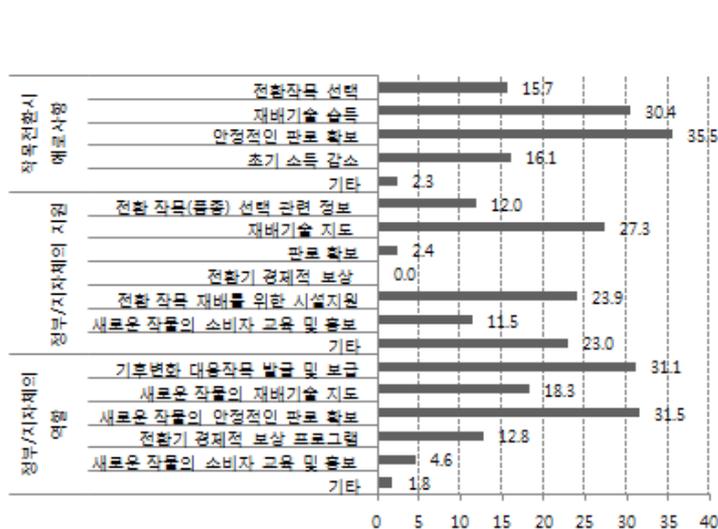
표 5. 시기별 작목전환 후 소득변화

	단위: %, %p		
	2011~2015(B)	2010년 이전(A)	A-B
전체 전환 농가	3.2	16.5	13.3
기후변화 대응 전환 농가	4.6	20.6	16.0

- 작목 전환 시 애로사항은 ‘안정적인 판로 확보’(35.5%), ‘재배기술 습득’(30.4%), ‘초기 소득 감소(16.1%), ‘전환 작목 선택(15.7%) 등으로 나타남.
- 작목전환 시 정부·지자체의 역할로는 ‘새로운 작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31.5%로 가장 많았고, ‘기후변화 대응작목 발굴 및 보급’이 31.1%로 그 뒤를 이음. 또, ‘새로운 작물의 재배기술 지도’와 ‘전환기 소득감소 보전 등 경제적 보상 프로그램’도 각각 18.3%, 12.8%로 나타남.

“
작목전환 초기
재배기술 적응,
투자비 등으로
소득증가 크지 않아

그림 10. 작목전환 시 정부·지자체의 역할



“ 기후변화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과학적인 분석결과 관련 정보 제공 필요 ”

3. 조사결과의 시사점

□ 농업인들의 기후변화 인지도 확대

- 지구온난화로 한반도의 기온은 1912~2010년간 1.8℃ 상승함. 미래에도 기후변화는 지속될 것이며, 가뭄, 집중호우 등 이상기상 발생도 보다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됨. 기후 의존적이고 타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업부문은 기후변화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적응 대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농업인들의 기후변화 인식에 대해 살펴본 결과,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에 대하여 82.8%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2009년 조사치(76.9%)에 비해 5.9%p 증가한 것임.

□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체감도 증가

- 기후변화가 농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농업인의 비중이 83.8%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의 6.8%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됨. 2009년(73.7%)과 비교할 경우 10.1%p 증가하여 농업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보다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후변화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농업인들의 체감도가 증가하고 있어 기후변화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과학적인 분석결과와 관련된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토록 해야 할 것임.

□ 유력한 적응 수단으로 작목변경, 재배시기조절, 농작물재해보험 등을 제시

- 농업인들이 현재 적용 중이거나 관심 있는 주요한 적응 방법은 ‘변화된 기후에 적합한 작목으로 변경’(20.1%), ‘작물 파종 및 수확 시기의 조절’(14.1%), ‘농작물재해보험 가입’(13.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보험의 실질적 효과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 필요

- 농업인의 대다수는 기후변화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실제로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보험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보험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보험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응답함. 따라서 보험의 실질적 효과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심층적 홍보나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보험 대상 품목의 확대와 품목의 특성 및 농가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동일 품목에도 보상범위나 보상내용을 다양화한 보험 상품의 개발로 보험 가입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작목전환 초기 경제적 보상 프로그램 도입 필요

- 농가들은 기후변화로 과거작목의 단수가 감소하거나 품질이 저하되는 경우와 기온상승으로 재배적지 품목이 바뀔 경우에 작목을 전환함. 이와 같이 기후변화로 작목을 전환한 농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므로 작목전환 실태를 상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음.
- 시기별 작목전환 후 소득변화를 살펴본 결과 기술 적응의 어려움, 초기 투자비 등으로 최근 전환 농가의 소득 증가율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작목전환 시 새로운 작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기후변화 대응작목 발굴 및 보급, 새로운 작물의 재배기술 지도, 전환기 소득감소 보전 등 경제적 보상 등의 정책 프로그램이 필요함.

“

농작물 재해보험의 실질적 효과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작목전환 초기 경제적 보상 프로그램 필요

”

KREI 현안분석 제8호

농업인의 기후변화 인식도와 적응 실태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16. 3. 18.
발 행 인 최세균
편집위원 최지현, 우병준, 김수석, 김용렬, 조미형, 한석호, 문한필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1833-5500 <http://www.krei.re.kr>
인 쇄 (사)장애인생산품판매지원협회 인쇄사업소
02-2269-5523~4 dec5523@hanmail.net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